



忠北大同門會報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제51호

발행인 : 조천희 편집인 : 어강석

충북대학교역사관



2022년 신년호 발간사 존경하는 20여만 동문 여러분!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 조 천 희

지난 2년여 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동문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2022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모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공모를 통해 UI가 새롭게 제정되고 개신동산을 조성하여 기념시비를 세우고, 타입캡슐을 매설했으며, CBNU스포츠센터와 충북대학교 역사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 초부터 본관 7층에 자리 잡았던 총동문회 사무실을 역사관(N19동) 2층으로 확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전한 총동문회 공간은 집무실, 사무처 및 32석 규모의 회의실을 갖추어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실은 각 지회에 대하여 지회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수갑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당국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충북대학교는 77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중부권 교육·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충북대학교의 앞날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에는 현재 대학의 절반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미래의 대학을 경고했습니다. 더구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대학의 존립 근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개신가족 모두는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비전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개신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대학 발전에 더욱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함께 키워가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때 충북대학교의 100년은 더욱 밝을 것이라고 보며, 이런 시기에 동문들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31대, 32대 총동문회장을 연임하면서 동문 간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통해 동문회와 모교의 공존공영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각종 사업이 무산되고 산하 동문회 및 지회 활동 등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동문회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고 다시 동문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모교의 도약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장서서 동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 7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문회보 발간을 위해 애쓰신 어강석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동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실 이전

충북대학교 총동문회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조성된 역사관 건물(N19동)로 2021년 12월 30일에 사무실을 이전했다. 총동문회 사무실은 일 반대학원 건물(약대 앞), 구)학생회관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본관 7층에 자리 잡고 동문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조성되는 학교 역사관 건물 2층에 새 동지를 틀었다. N19동(구. 63동)은 과거 제2본관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으로 충북대학교 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동문들에게 상징적인 건물이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재건축

되어 1층은 학교사 자료실, 아카이브 열람실, 북카페, 2층은 총동문회 사무실, 휴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역사관이 되었다. 특히, 2층에 자리 잡은 총동문회는 총동문회장 집무실, 총동문회 사무실, 회의실로 확대 구성되었다. 총동문회는 32석 규모의 회의실을 동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소통과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산하 동문회의 회의 및 보조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동문 명예의 전당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총동문회의 회의실을 대여하려면 총동문회 사무실(T.261-3121)로 신청하면 된다.



<회장 집무실>



<총동문회 사무처>



<총동문회 회의실>

원로 선배 김진한 교수님 새해 인사차 방문

2022년 1월 22일 김용은 총동문회 감사(과교 72)와 조천희 총동문회 회장(토목 79)이 김영관 박물관장(사학 85)과 함께 충주 수안보의 김진한 교수님(농학 64)을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드렸다. 김진한 교수님은 농학과를 졸업한 후 1970년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서 제1호 석사 학위를 받으셨다. 1977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시며 후학들을 길러내셨고, 2010년 2월 퇴직하신 후 원예학과 명예교수로 계신다. 김진한 교수님은 본인의 충북대학교 제1호 석사학위증서를 비롯한 학교사 자료 일체를 박물관에 기증해주셨다. 그 덕분에 개교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충북대학교역사관' 전시실이 풍성하게 꾸며졌다.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 행사

기념식 / 개신동산조성 / 시비제막식 / 타임캡슐



우리 대학이 1951년 지역민의 염원으로 개교한 후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9월 28일에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였다. 오전 10시에 솔뫼 옆 잔디밭에 조성된 개신동산에 개교 70주년을 기념 타임캡슐을 매설하고, 동문인 도종환 시인의 기념 헌시 시비석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이어서 10시 30분부터 개신문화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수갑 총장을 비롯하여 조천희 동문회장, 오태영 총학생회장,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도종환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엄태영 국회위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초청해 진행했다. ‘개교 70주년 기념식’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됐다. 무엇보다 이번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조성한 개신동산에는 그동안의 역사를 담은 기념물과 교직원들의 사진, 현 시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코로나시대를 대표하는 교무위원들의 사인이 담긴 마스크 등을 담은 타임캡슐을 매설했으며, 개교 100주년인 2051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이어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국어교육 73)의 기념헌시 시비석 제막이 이어졌다. 도종환 시인은 충북대의 70주년의 역사를 축하하고, 더 나아가 충북대라는 당당한 중심축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만의 커다란 뿌리를 내리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 ‘당당한 중심’이라는 제목의 시를 헌사했으며, 시비석은 조천희 총동문회장이 기증하였다.

이어진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개교 70주년 경과보고에 이어 ▲자랑스러운 개신인 표창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BK21 FOUR-GALAXIA 시상 ▲감사패 수여 등 충북대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이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우리 대학의 70년 역사를 담은 ‘70년사’ 전달식과 개교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리뉴얼 된 UI도 선포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70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자는 의미를 담은 심벌마크와 대학의 권위를 내려놓고 창의적이고 친근한 이미지의 소문자 영문마크를 대학 최초로 도입했으며 대학의 대표 캐릭터인 CBNU프렌즈도 선보였다.

김수갑 총장은 “전쟁이 끝난 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쌓 한 되, 보리 한 되에 모아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인재양성의 요람인 우리 대학이 70주년을 맞이했다. ‘만 리(萬里)를 가는 황소의 걸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뜻을 같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위기에도 두려움 없이 새로운 미래의 창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동문미술전 개최

우리 대학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2021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민아트센터에서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전 <NOVA APERIO>’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충북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NOVA APERIO’의 정신이 예술로 재탄생했다. 9월 24일 오후 2시에 개막식을 개최하였는데, 이날 개막식은 김수갑 총장, 이문순 기획처장, 김영관 박물관장, 장덕수 우민재단 이사장, 김승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용미 우민아트센터 관장과 이번 작품전에 출품한 작가진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주제이기도 한 <NOVA APERIO>는 “새로운 것을 깨우치고 펼친다”는 뜻으로 우리 대학 개교 70주년의 정신을 문화예술에서 계승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우리 대학 조형예술학과의 전신인 미술교육과의 창과에 함께한 김수현 명예교수를 비롯해 우리 대학 교수인 김정희, 이규식, 임은수, 박계훈, 박필현, 임춘배, 손부남, 임미나, 최익규, 황학삼 작가 등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3명의 작가진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학생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UI 개발·선포

우리 대학은 2021년 9월 28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리뉴얼한 충북대학교 UI(University Identity)를 개발·선포했다. 이번 새로운 대학UI 개발은 지난 2020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 브랜드의 재활성화를 위한 UI 리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UI를 개발한 것이다. 이번 새로운 UI 개발은 기존의 대학이 갖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Z세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했다. 특히 심벌마크는 기존보다 간결한 이미지로 구현하였는데, ‘개신(NOVA APERIO)’이라는 우리 대학의 70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문 마크는 모바일 가독성을 높이고 대학의 권위를 내려놓고 창의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담고자 소문자 영문마크

를 대학 최초로 도입하였다. 특이 이는 최근 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리뉴얼 추세로 충북대 역시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앞장 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지난 2019년 학생 공모전을 통해 도입된 학교 대표 캐릭터 ‘우왕이’를 비롯해 새로운 대학의 대표 캐릭터인 CBNU프렌즈도 선보였다. CBNU프렌즈는 교목인 느티나무와 교화인 미선나무꽃을 의인화한 캐릭터 2종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한 곰, 호랑이 캐릭터 등 총 6종의 캐릭터가 개발되었다.



대학 최초 무장애 나눔길 '행복담길' 개통

우리 대학이 대학 최초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 '행복담길'을 조성하여 2021년 11월 1일에 개통식을 진행했다. '행복담길'은 숲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2021년 9월 구성원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진행해 당선된 이름이다. 그간 대학 내 학술림 수목원 주변으로 오솔길이 있었으나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누구나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진행한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신청, 대학 캠퍼스에서는 우리 대학이 최초로 선정됐다. '행복담길'은 녹색자금과 시도비 등을 지원받아 교통 약자와

지역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800m의 구간으로 조성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교행이 가능한 폭, 완만한 경사, 접자 핸드레일을 시공하고 곳곳에 쉼터공간을 조성했다. 향후 지역주민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대학 비교과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수갑 총장은 "대학 내에 인간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해 이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나누고 건강함도 되찾는 공간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세종동물병원 개원



2021년 9월 23일 오전 10시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의 분원인 충북대학교 세종동물병원(센터장 장동우)의 개원식을 시작으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열었다. 이번 개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으며, 남상운 학장을 비롯하여 김수갑 총장, 수의과대학 교수진, 대학 간부진 등 대학 관계자들과 세종특별자치시 이준희 시장,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 박미선 원장,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세종시수의사회 이인재 회장, 충북수의사회 이승근 회장, 장석진 수의대 동문회장 및 양성모 수의대 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충북대학교 세종동물병원은 490㎡ 규모에 방사선촬영실, CT실, 초음파진단실, 내시경실, 수술실 등을 갖췄

으며 40여 명의 의료진과 동물보건사, 임상병리사 등이 근무하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교육 및 연구 활동도 수행한다. 이날 김수갑 총장은 "충북대학교 세종동물병원의 개원이 재학생들에게는 미래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역량 및 임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세종 지역사회에는 양질의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세종동물병원의 개원으로 세종시와 세종 인근 지역에서 본원(청주)으로 특화진료를 받던 중증 동물과 보호자에게 더 편리하고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세종시에 최상의 동물 진료 시스템 및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세종시 진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지난 2021년 2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LH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주관하는 세종 공동캠퍼스(임대형) 입주 대학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세종 공동캠퍼스 선정에 따라 수의임상 분야의 교육 및 실습 기회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교수 및 학생의 다양한 임상교육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수의과대학 세종캠퍼스는 세종특별자치시 4-2생활권에 설립되며,

수의임상학 분야의 교수, 본과 3, 4학년 학생 및 대학원생 약 150여 명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총면적은 4,715㎡이며, 교수 연구실, 학생 강의실 및 실습실로 구성된 기본 교육시설은 2,755㎡ 규모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시설을 비롯하여 학생 및 직원 구성원의 편의시설로 회의실, 행정실, 동아리방 및 휴게실도 확충되었으며,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대학교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이 개원 30주년을 맞이 2021년 9월 28일 오후 2시 병원 서관 9층 직지홀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최소인원만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에는 김수갑 총장, 김원섭 의과대학장, 오두환 충북대학교병원 상임감사, 조명찬 13대 충북대학교병원장, 한헌석 14대 충북대학교병원장, 최재진 충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병원의 발자취를 담은 개원 30주년 기념 영상으로 막을 올린 기념행사는 30주년 기념 슬로건 및 사진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공모작원에 대한 포상 및 감사장 수여와 함께 공모전 당선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시행됐다. 마지막으로故 이완호 작가의 작품기증식이 시행됐다. 최영석 병원장의 기념사, 김수갑 총장의

격려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등 각계각층의 축하를 끝으로 30주년 기념행사의 막을 내렸다. 충북대학교병원은 1991년 7월 20일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원해, 1995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초창기 9개였던 진료과를 24개로 확충하면서 충북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발돋움했다. 최영석 병원장은 "지난 역사를 통해 얻은 것들이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며, "함께한 모든 이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건강과 의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30주년 슬로건을 충북도민과 충북대학교병원이 앞으로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를 뜻하는 '같이 걸어온 30년, 함께 걸어갈 미래'로 정했다.



농협경제지주 상무 **염기동**



염기동 농협경제지주 상무(수학 83)는 동문회보와의 인터뷰에서 “규모와 위상면에서 큰 발전을 이룬 충북대가 이제는 충북을 넘어 세계의 명문대학들과 자웅을 겨루는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희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충북대를 위해 축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983년도에 입학했으니까 39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드넓은 캠퍼스에 농대, 인문대, 사회대, 사범대, 공과대, 약학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영대, 전자정보대, 수의대, 의대, 생활과학대, 일반·전문·로스쿨을 포함한 특수대학원 등 4만여 명의 학생, 교수, 교직원이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규모는 물론, 위상면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충북을 대표하는 대학을 넘어 한국, 나아가 글로벌 대학으로의 역량과 자질을 갖췄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 상무로 승진했는데, 농협 충북본부장의 상무 승진은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충북본부장 재임 중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전 농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학과를 졸업하고, 농협에 들어가 32년간 근무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재학 시절 약대 넘어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 농촌마을에서 모내기 일손돕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와 상가가 즐비한 성화동 농협건물에서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으니 묘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의 뿌리는 농업과 농촌입니다. 2020년 충북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충주·제천·단양 등 중·북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농협은 전 조직이 한마음으로 나서 생필품과 세탁차량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아픔을 빨리 치유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

화로 소비가 줄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과 모바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등 충북 농산물 판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일이 보람이었습니다. 충북농협 가족들과 소통하며 농·축협 발전에 함께한 일 등 농업인,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농협 내 농산물 유통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신데, 농협에 입사한 동기와 어떤 경력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농협은 학과·전공을 불문하고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1990년 3월 2일, 고향인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4년도 중앙본부 농업경제기획부에서 책임자 생활을 시작으로 농산물 도매 업무를 하는 농산물공판장과 소비자유통을 담당하는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어 창조경제유통혁신단장, 온라인사업부사장, 창동하나로마트 사장, 가락공판장 사장, 원예부장, 충북유통대표이사, 농협 충북본부장을 끝으로 대부분 농업경제 분야에서 근무하다보니 유통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승진하면서 맡은 업무가 농업경제 분야인데, 어떤 일인가요.

농협경제지주 소매유통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사업 중 소매유통인 농·축협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등 전국의 2200여 개 농협마트에 상품 공급, 마케팅 지원, 경영지원과 온라인 사업 등 온·오프라인 소매유통 사업을 총괄 지원

하는 체인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북대 재학시절 기억에 남는 일들은 무엇인지요.

당시만 해도 대학 캠퍼스는 학업과 낭만이 상존하는 시기였습니다. 학과 수업을 좀 등한시해도 대학에서 낙제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취업이 정말 힘든 시기라 학사관리를 잘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봄·가을 반드시 MT도 갔었고 가끔 자전거를 빌려 대청댐에 놀러간 일, 인근 대학생들과 지금의 강내면 인근 딸기밭에서 미팅도 하고, 방학 때는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추억거리가 많았습니다.

충북대 출신들이 농협에도 많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 특히 농협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본사에서 1990년대 후반 충북대 동문회 간사를 맡은 적이 있는데 서울에 150명 정도로 꽤나 많은 동문이 있었고 활성화도 잘됐습니다. 지금도 서울과 충북을 합쳐서 300여 명의 동문들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후배들의 입사가 적는데, 농협 채용은 중앙회, 경제, 은행 등 계열사 별로 또 사업 부문별로 구분해서 채용합니다. 주로 5급 대졸 또는 6, 7급 채용이 있는데 5급의 경우 연말에 공고가 납니다. 나머지는 수시 채용이 있어 평소 관심을 갖고 경제, 전공 분야 중심으로 준비를 한다면 우리 후배들도 입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농협이 모교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계획을 마련해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협의 근간은 농업·농촌·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까지 농협 조직이 있습니다. 요즘 국가나 농협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앞으로 농촌,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분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본부와 대학 취업센터에서 설명회 개최 등으로 발전과 희망이 있는 농업 분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했으면 합니다. 또 농촌 인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농번기 대학생들이 일손 봉사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소정의 실비 지원과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충북도, 대학, 농협지역본부가 함께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이 사업에 모교 재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대 발전을 위한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충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서면 합니다.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 비전 달성을 위해 학생, 교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 대학의 상징물인 황소처럼 우직하게 전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개교 70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개신인상’ 시상

2021년 9월 28일 개교 70주년 기념을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를 빛낸 동문 16명을 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자랑스러운 개신인상’을 시상하였다. 자랑스러운 개신인상은 정치, 행정, 교육, 학술, 문학 및 예체능, 산업 및 사회, 기타 분야로 나누어 선정되었고 이들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였다.



구 분	수 상 자
정 치	도종환(국어교육 73) 국회의원 엄태영(화공 77) 국회의원 이장섭(국문 82) 국회의원
행 정	정상혁(임학 60) 보은군수 이차영(행정 79) 괴산군수 이종성(농경 82) 전)국무조정실 평가실장 이범석(행정 85) 전)청주부시장
교 육	김병우(국어교육 76) 충북도교육감 류태기(체육교육 61) 전)청주교육장
학 술	장 수(대학원) 연변대학교 부총장 한종구(국어교육 72) 전)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신강일(불문 86) 경찰대학교 교수
문학 및 예체능	박기원(미술교육 85) 미술작가
산업 및 사회분야	신민철(토목 81) 일진건설산업(주) 대표이사 김규전(토목 82)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기타 분야	김진한(농학 64)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동문이 주도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 과학분석 연구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 『직지』의 성분분석과 보존상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청주고인쇄박물관, 충북대학교 지류유물보존처리센터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충북대학교 지류유물보존처리센터 최태호 교수(임학 79)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윤희봉 학예사(고미사 98)가 주도하고 있다. 두 동문이

주도하고 있는 연구는 앞으로 『직지』의 원형 복원을 비롯하여, 항구적 보존과 발전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최태호 교수



윤희봉 학예사

충북대상공인회 학교발전기금 전달

충북대상공인회(회장 황동민, 안전 87)는 2021년 12월 30일 학교발전기금 300만원을 이재은 대외협력본부장에게 전달하였다. 충북대상공인회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21년 납부금 300만원을 전달한 것이다. 충북대상공인회는 동문 출신 기업인과 상공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93년 9월 ‘개신청년상공인회’로 출범하여 2016년 ‘충북대상공인회’로 개칭하고 현재 43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가입 문의 : 최천 사무총장 010-8232-7890)



제43회 토목공학부 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토목공학부 동문회(회장 류근형, 86 학번)는 2021년 12월 4일 17시에 S 컨벤션센터에서 제43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약 80여명의 토목공학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목공학부 5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

으로 이루어 낸 7대 최석근 동문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2021년 박사 학위를 취득한 4명에 대한 자랑스러운 동문패 전달, 기술사를 취득한 5명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으며 재학생 5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2021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개최

정든 교정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첫 발걸음을 떼는 졸업생들을 응원하고 졸업을 축하하는 시간을 코로나19의 확산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개신문화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유튜브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졸업생 및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는 총동문회 윤양택 수석부회장이 축사를 하였다.





국가정보원 차장

천 세 영(행정 85)

2021년 11월 26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으로 임명되었다.



보은경찰서장

안 효 풍(경제 81)

1월 14일 충북보은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다.



충주경찰서장

김 철 문(법학 85)

1월 14일 충북충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

김 선 각(대학원)

(주)네오세미텍 대표로 재직 중이며, 2021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장상을 수상하였다.



무역 수출탑 대통령상 수상

정 희 섭(건축 87)

(주)엠솔루션 대표로 2021년 무역의 날 칠백만불 수출탑 대통령상을 수상 하였다.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정 중 홍(경영대학원)

(주)클레버 대표가 중소기업부의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괴산군 부군수

민 영 완(국문 84)

1월 1일 충북 괴산군 부군수로 부임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장

박 상 복(토목 83)

1월 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였다.



농협은행 충북대학교지점장

최 영 준(사학 90)

1월 1일 농협은행 충북대학교 지점장으로 부임하였다.

충북대학교 징검다리 사진예술반 동문회 ('81학번)

"인생60-징검40" 사진전

공간에 머문 순간들... 그리고 우정



1981년 8월



2021년 8월

"징검다리81" 은

충북대학교 사진예술반 동아리 출신들로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10월 26일~11월 3일까지 청주예술의 전당 소1전시실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동문인사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 1월 1일 <교육행정>

- 유연서(계산통계 82) 교육연구정보원 부장
- 주병호(독문 83) 교육도서관장
- 홍석문(농기계 84) 충북교육청 시설과 시설사업팀장
- 이세형(입학 86) 충북에너지고 행정실장
- 노정아(농학 87) 서전고 행정실장
- 이윤숙(불문 87) 중원교육문화원 총무과장
- 장병현(농생물 88) 충북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복지팀장
- 박대규(중문 90) 단재교육원
- 신창수(중문 91) 충북교육청 재무과
- 김정기(농생물 92) 충북교육청 공보관
- 김부일(건축공 99) 학생수련원 부장
- 한주형(대학원 03) 교육연구정보원 부장
- 안용모(대학원 05) 충북교육청 행정국장
- 최영미(대학원05) 충북교육청 재무과장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 3월 1일 <장학관 · 교육연구관>

- 이영정(미술교육 79)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김상열(지리교육 81) 단재교육연수원장
- 김종렬(수학교육 81)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 홍순두(역사교육 81) 진로교육원장
- 김경희(영어교육 83)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관
- 조삼현(수학교육 83) 충북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장학관
- 김길영(국어교육 86) 음성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 송기복(역사교육 89)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농협중앙회 2022년 1월 1일

- 박시원(경영 90)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장
- 오희관(행정 89)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부분부장

2021년도 임원회비 납부자 명단

■ 회장 : 조천희 2,000만원

■ 부회장 : 50만원

- | | | | | | | |
|-----|-----|-----|-----|-----|-----|-----|
| 권호택 | 김동구 | 김동식 | 김동완 | 김두호 | 김병우 | 김사석 |
| 김수갑 | 김요식 | 김정태 | 김진균 | 김진상 | 김형근 | 노동영 |
| 도종환 | 류근형 | 박기수 | 박덕규 | 박완배 | 박완희 | 박종서 |
| 박종진 | 변은영 | 송태영 | 신동엽 | 신태수 | 심우용 | 양승덕 |
| 엄태영 | 유상용 | 유용철 | 윤종민 | 윤현우 | 이범석 | 이영노 |
| 이장섭 | 이재신 | 이종영 | 이진희 | 이차영 | 장동석 | 장선배 |
| 장수정 | 장윤식 | 정희섭 | 조기식 | 조남훈 | 조성록 | 조성훈 |
| 최병윤 | 최태호 | 최현호 | 홍성민 | 홍종갑 | | |

■ 수석부회장 : 윤양택 30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 | | | | | | | |
|-----|-----|-----|-----|-----|-----|-----|
| 구민형 | 김기동 | 김길하 | 김두환 | 김선각 | 김성만 | 김영관 |
| 김영주 | 김은영 | 김정희 | 맹승진 | 박결순 | 박세종 | 박영석 |
| 박진희 | 박철용 | 변기철 | 서정욱 | 신광균 | 신의섭 | 신현구 |
| 신홍섭 | 안광국 | 안효풍 | 양영순 | 윤병인 | 이강우 | 이광희 |
| 이범홍 | 이봉직 | 이호진 | 임달호 | 정노희 | 정성호 | 최 울 |
| 최성호 | 허태영 | 홍기남 | 홍진태 | 황운서 | 황창호 | |

■ 평생회비 : 박영석(의학 93) 정운성(건축공 96)

동문회비 납부안내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시 성명 · 학과 · 입학년도 입력 요망!!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이상

농협 301-0229-7165-71 (예금주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문의. 043-261-3121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
김지수 (영문 98)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98학
번 영문과 졸업생 김지수입니다.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
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화
제의 인물로 선정되어 많이 부끄러
울 따름입니다.

응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선행
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고 많
은 관련 기사가 나갔는데 당시의 상황
을 말씀해 주세요.

네, 사회공헌 업무 협의차 광주광역
시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렀다 머리에 피를 흥건히 흘리고
호흡이 되지 않고 쓰러진 상태에서
허가 말려 나온 노인분을 발견했습
니다. 맥을 짚고 귀를 코에 갖대 대
니 맥이 희미하게 뛰었고 호흡은 되
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임을 감지하고 저는 바로 행인
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바로 119 구
급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
인분의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고, 신
발을 벗기고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과 심폐소생술(CPR)을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10여 분간 실시하여 생
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훨씬 전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건물이
폐쇄되는 등 지금보다 코로나에 대

한 두려움과 공포가 훨씬 큰 시기였
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려야 한
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인공호흡과
CPR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
실이 우연히 알려져 광주광역시청
으로부터 역대 세 번째 '의로운 시
민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생방송
MBC 및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습
니다.

대학 시절 인명구조사 연수에서 배운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후
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여 년 전에 우연히 적십자에서 취
득한 '인명구조자격증' 이이렇게한
사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저는 언제든 가족,
동료, 선후배 사이에서 심정지 환자
가 발생하거나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래서 바로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에 의뢰를 하여 2차례에 걸쳐 전 직
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소화기 및 완강기 교육
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광주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가입하여 작년에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지원은 물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 지원 등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언제 발
생할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고 기회
가 된다면 관련 교육 등을 이수 또는
자격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이외에 모교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충북대학교 많은 재학생 또는 졸업
생 등 선후배님 분들께서 생활 또는
사회에 나아가 남을 돕고 사회에 기
여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전파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살기좋은 사회'를
후대에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리
고 나아가 모교를 널리 알릴 수 있
다면 더욱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두환 편집위원>



동문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재)한국 선사문화연구원 재직 동문 일동

2005년 개원한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문화재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유적·유물의 역사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송절동 유적 전경



이용조(명예교수)



우중윤(역사교육 77)



이재돈(고고미술사 89)



이승원(고고미술사 92)



손명수(고고미술사 93)



박정미(고고미술사 95)



안주현(고고미술사 98)



황해경(고고미술사 98)



최관호(역사교육 98)



윤병일(고고미술사 01)



정효정(고고미술사 08)



김미라(고고미술사 03)



이정아(고고미술사 03)



강윤희(고고미술사 11)



손은이(고고미술사 11)

동문회보 편집위원회

* 위원장 : 어강석(국문 87)

* 위 원 : 김영관(사학 85) 장충덕(국문 88) 장기우(교육 90) 박진희(국문 91)
박준영(임학 94) 김두환(체육 98) 김미경(농생 00) 황동민(안전 87)

국립대학육성사업 연차평가 네트워크 활성화 최우수등급 선정

우리 대학이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분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초·보호 학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 '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등 5대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 계획으로 시행 중이다. 우리 대학은 국가거점국립대 중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최우수 등급 선정 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8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우리 대학은 국가거점대학 및 충북권 대학과의 원격수업 학점교류 공동 운영체제 구축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네트워크 구축 목표에 적합한 사업 성과를 달성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개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연차평가 네트워크활성화최우수등급

대학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최고 등급 A등급, 충청권역 국립대학 유일

우리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 연도 연차평가 및 1~3차 연도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 충청권역 국립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은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 구축 지원과 대학의 비전, 목표, 여건 등에 부합하는 혁신전략과 과제를 선택해 총체적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14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재정지원사업이다.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한 글로벌 전문 개인인 양성을 위해 전공교육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 대학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 및 수혜, 핵심 자율성과지표와의 직접적 연계 등의 특징을 살려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목 개발의 활성화, New-CHANGE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구축을 통해 핵심역량 진단 및 역량 제고, 단과대학(전공) 특화 비교과 프로그램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개교 70주년 기념 CBNU굿즈 학생 공모전 시상식 개최

개교 70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의 캐릭터인 '우왕이'와 대학 UI를 활용한 CBNU 굿즈 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10월 1일 오후 4시 대학본부 5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티커·그립톡 등 문구류 △텀블러·열쇠고리 등 생활용품 △티셔츠·에코백 등 패션용품 등 3개 분야로 공모를 진행했고, 총 210건의 굿즈 디자인이 접수됐다. 충북대는 접수된 작품을 심사위원의 평가와 학생 선호도 조사 투표를 거쳐 대상을 포함해 수상작 10개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박소영(디자인학과 2학년), 윤여찬(국제경영학과 4학년) 학생팀의 '우왕이 케이블 바이트'가 선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스티디 플래너, 다이어리, USB, 담요, 슬리퍼, 보틀, 에코백, 배지, 잠옷 등의 아이디어를 낸 학생들이 각 분야별로 상을 받았다. 김수갑 총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개교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애교심 향상에 기여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프로슈머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역량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생활에서도 편리하게 활용되는 굿즈 관련 지원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손으로 만드는 CBNU 굿즈'학생공모전시상식 개최

클로소이드팀, 2021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챌린지 준우승 입상

스마트카협동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클로소이드팀(Clothoid, 이동규, 박창현, 정지은, 이원종, 박근남, 이선우, 최연호, 지도교수 기석철)이 2021년 11월 29일에 서울시 상암 일대에서 진행된 '2021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챌린지'에 참가해 준우승을 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학생들은 약 17개월 간 대회를 준비했으며, 예선은 23개 대학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경연으로 진행했으며, 우리 대학을 포함한 6개 대학이 본선에 진출했다. 결선에 진출한 클로소이드팀은 현대자동차에서 지급한 전기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개조해 결승대회에 참가했다. 결승경기는 6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암도심 약 4Km 구간을 주행하면서, 주행 도중 교통신호와 법규를 준수하고 가장 빠르게 주행하는 대학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 교통신호나 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이 주어진다. 우리 대학은 2차래의 본선 주행에서 벌점 없이 안전히완주했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13분 31초라는 기록을 세우며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클로소이드팀은 이번 성과로 상금5천만원과 중국 견학의 특전을 받게 됐으며, 서울특별시시장상도 함께 수상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오창 캠퍼스에 자율

주행 테스트베드 C-track을 건설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연구 인프라를 통해 우수한 인력양성과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를 선도한다!

로스쿨, 신입검사·재판연구원 최종 합격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신입검사 선발은 물론 재판연구원에 최종 합격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11기 김주영 학생이 2022년도 신입검사 선발 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데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11기 강선혜, 김영현 학생이 2022년도 재판연구원(로클릭)에 최종 합격했다. 김수갑 총장은 11월 18일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신입검사 및 재판연구원에 합격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김 총장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합격생 모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선배이자 스승으로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 충북대 로스쿨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예비 법조인 배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재보존기술지원센터, 2021년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산학협력단 부설 문화재보존기술지원센터(HSC)의 한규성 교수, 임익균 연구원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KOFITA)의 차현석 연구원, 강원철 연구원이 함께 만든 '전국 지중 흰개미 피해 목조문화재 현황'이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2021년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제품·개발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중 흰개미 피해 목조문화재 현황'은 전국의 목조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중 흰개미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국 23개 문화재돌봄사업단 중 18개 지역별 돌봄사업단의 발간 보고서와 같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도의 확대 정도에 따라 지역별 지중 흰개미 가해 목조 문화재 건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사 연도, 가해흔과 가해 진행 대상에 따른 1차 분류와 문화재보호법(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시·도 유형문화재 등)에서 규정한 문화재 분류 기준에 따른 2차 분류 체계로 구성, 전국 단위 및 지역별 문화재 지정 종류에 따른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문화유산공공 빅데이터활용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약학과 한상배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약학과 한상배 교수(약학 88)가 2021년 9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분야에서 업무 유공자의 교육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시상은 흥진태 약학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에서 활약한 성과로, 한상배 교수 외에도 5명이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한상배 교수는 바이오헬스산업혁신본부장 및 제약바이오사업단장직을 맡아 충북의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사업단을 총괄하여 다양한 과제를 통해 도내 대학, 기업 및 혁신기관의 협력을 이끌고 바이오인력 양성에 이바지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분야 유공자 선정 약학과 한상배 교수

화학과 학생들,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우수과제 선정

화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에서 우수 과제에 선정되었다. '2021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은 지도교수와 학부생 2~6명이 1팀으로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서류 심사를 통해 전국 대학에서 모두 100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했고, 연구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13건을 선정했다. 연구팀은 화학과 김민 교수의 지도 아래 화학과 이대연(팀장, 4학년), 이상호(4학년), 김준영(3학년), 차승현(3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소 이온 전도도 연구를 위한 테트라졸이 매달린 금속-유기 골격체 합성"을 주제로 6개월간 진행했다. 본 과제를 통해 탄소 원자 한 개와 질소 원자 네 개로 이뤄진 오각고리 화합물인 테트라졸을 다공성 금속-유기 골격체에 도입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테트라졸의 산성도를 기반으로 하여 수소 이온 전도성 연구를 수행했다. 금속-유기 골격체는 유기 분자와 금속의 반복적인 배위결합으로 얻어지는 3차원 다공성 물질로 최근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 다양한 분리막 제작 및 응용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유기 골격체의 작용기와 수소 이온 전도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직접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우수과제 선정



기록관리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대학 선정

우리 대학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21년도 기록관리 평가’에서 국공립대학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21년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5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45개, 국·공립대 43개 등 전국 2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공공기관 기록관리평가’를 진행하고, 11월 18일자로 개별 통지했다. 평가는 기록관리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에서 ‘다’까지 등급을 부여하는데, 충북대학교는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평가를 받았다. 우리 대학은 학교 기록관리뿐만 아니라 충청권 10개 기관과 기록문화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록의 날(기록주간) 기념행사로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고,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옛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기록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록문화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향후 학내 기록 관리를 위해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며, 민간 기록물 수집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건축학과 학생들, 청주 중앙공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

건축학과 학생들이 2021년 8월 26일에 발표된 ‘2021 청주 중앙공원 대학생 아이디어(파빌리온)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2021년 6월 1일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1차 심사를 거쳐 현장설치 대상작을 선정했고, 8월 13일에 현장심사를 거쳐 통과한 3개의 작품이 8월 31일(화)까지 청주 중앙공원에 전시됐다. 건축학과 김주영(석사 2년), 김준희(5학년), 박준혁(4학년), 이고은(4학년), 박종익(4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Ar무말(아무말)’ 팀은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함께 수상했으며, 상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Ar무말(아무말)’ 팀이 제작한 작품은 ‘음유당(소리를 즐기는 마당)’이라는 파빌리온으로 중앙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태와 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아이디어로 동시에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재료를 통해서 도심의 소리를 담아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건축학과 학생들, 청주 중앙공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수상

지역건설공학과 맹승진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지역건설공학과 맹승진 교수(농공 86)가 2021년 12월 7일 재해 관련 연구개발 협업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맹승진 교수는 평소 재난안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가뭄과 홍수재해 대비를 위한 수재생 저류장치’, ‘침수 경보 장치’ 등 재해와 관련한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은 IoT와 홍수위 예측 앱을 연동시켜 홍수위를 1시간 단위로 예측함으로써 홍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홍수 위험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가뭄과 홍수재해 대비를 위한 수재생 저류장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일시에 저류하여 홍수를 줄이고 저류된 빗물을 가뭄 시 활용하는 장치다.



재해관련 연구개발 협업 공로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지역건설공학과 맹승진 교수

충북대 LINC+사업단, 2021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충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2021년 10월 20일에 교육부 주최,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열린 ‘2021년 산학협력 EXPO’ 개막식에서 2021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력양성 부문 ‘지역특화산업 분야 기업맞춤형 트랙 확산을 통한 기업수요맞춤형 인력양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산학협력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해 산학협력 활성화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회다. 유재수 충북대 LINC+사업 단장은 “대학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우리 사업단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해 현장역량이 높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 앞장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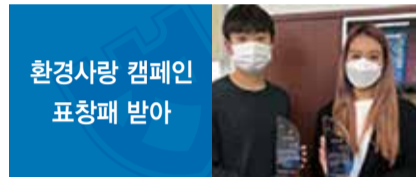


LINC+사업단, 2021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러시아언어문화학과 학생들, 환경사랑 캠페인 청주시장 표창패 받아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정대훈(4학년), 김수지(2학년) 학생이 청주 지역 러시아권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사랑 캠페인에 참여해 청주시를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12월 28일에 표창패를 받았다. 정대훈, 김수지 학생은 2021년 6월 러시아언어문화학과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를 조직하고, 청주시청 자원정책과의 지원을 받아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이주민들에게 배포할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러시아어로 제작한 바 있다. 이후 두 학생은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들과 충북대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작한 리플릿을 청주시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지역 행정복지센터,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봉명동 작은도서관 등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두 학생은 이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제작한 리플릿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 생활에서 올바른 분리배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청주시 봉명동 일대의 러시아 상점, 길거리 등 러시아권 이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방문해 분리수거 배출 시범을 보이며 배출 요령을 교육 및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러시아권 이주민 커뮤니티에 무상으로 제작한 문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운동을 펼쳤다.



환경사랑 캠페인 표창패 받아

정시모집 경쟁률 6.74 대 1로 5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

우리 대학이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1,056명 모집에 7,118명이 지원해 최종경쟁률 6.74 대 1을 기록했으며, 5년 연속 거점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정시 경쟁률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은 총 427명을 선발하는데 3,155명이 지원해 7.39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정시 나군 수능 일반전형은 546명 모집에 3,599명이 지원해 6.5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38명을 모집하는 정시 가군 실기/실적전형은 106명이 지원, 경쟁률이 2.79 대 1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입학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750여 명의 교수와 석·박사, 연구원, 학부생 등이 학문지식공동체를 이루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육모델 형성에도 앞장서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9년부터 총 41개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456여 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2021년 교육부 주관 각종 연차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하는 등 연구력 증진과 능동적인 미래교육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산업에 진출할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신설, 취업, 창업, 진학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과정의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 기반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과 학문적 균형성을 높이는 연구 풍토를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신캠퍼스를 중심으로 오송, 오창, 세종 등 캠퍼스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 이소영 학예연구사, 박물관·미술관 발전유공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박물관 이소영 학예연구사(고미사 92)가 1월 10일에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정부 유공 표창은 지난 한 해 동안 성과가 뛰어난 박물관, 미술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소영 학예연구사는 지난 2010년부터 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조직홍보국장과 (사)충청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 이사/부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충북대 박물관은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대학’을 담당하면서 고품격 문화강좌를 지향하여 수강생을 크게 늘려 현재까지 총 75,0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하는 등 국내 대학 박물관 내 교육 프로그램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2016년부터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5년간 약 7,4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실습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약 60여 명의 학생이 약 13개교 대학 박물관에서 실습하는 등 박물관 전공 특성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소영 학예연구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충북대병원, 음압 수술실·심혈관조영실 구축

충북대병원이 2021년 12월 22일 음압 수술실과 음압 심혈관조영실 구축을 완료했다. 코로나 확진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감염이 우려돼 정상적인 절차로 치료하기 어렵다. 일반 격리병동에서조차 환자 혈압 체크를 위해 전신 방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 환자를 수술할 경우엔 더욱 제약이 따른다. 충북대병원은 코로나 환자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 지난해부터 음압 수술실을 구축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음압 수술실에서는 코로나 확진된 맹장염 환자를 시작으로 총 20여 차례의 수술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10월부터는 음압 심혈관조영실을 운영하고 있다. 음압 심혈관조영실은 코로나 확진으로 기존의 심혈관조영실에서 시술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이번 구축으로 코로나 환자가 협심증, 심근경색 등 일각을 다투는 시술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도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코로나와 중증질환을 동시에 책임지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충북대병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도종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최근 근황과 함께 동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3학번 도종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흔들리며 피는 꽃', '담쟁이' 같은 시로 기억하는 시인이자 현재 청주시 흥덕구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2012년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주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약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고, 장관도 역임하는 등 입법부 행정부를 오가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됐던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저지하고,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문화예술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2021년 7월, 한 스포츠 선수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특별청문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맡았던 평창동계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지요. 올림픽 7개월을 앞두고 장관을 맡았는데, 다들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고 또 남북 평화공존의 길을 트는 등 스포츠가 정치를 견인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점에서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교에서의 대학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제 어릴 때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국어교육과로 진학하게 되었지요. 대학에 들어가서 상처받은 마음에 많이 방황하고 좌절했어요. 술 먹고 객기 부리는 제 모습을 보고 선배들이 문학에 끼가 있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선배들이 '미

운오리새끼'라는 문학 동아리로 끌어들이면서 문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난, 상처, 좌절이 제 시와 문학을 끌고온 것이지요. 돌아보면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시를 쓰면서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시를 통해 위로받기도 했기 때문에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모교에 <당당한 중심>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하셨습니다. 시가 담고 있는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살면서 먼저 돋보이고 먼저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피었느냐, 언제 피었느냐보다 아름답게 피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피는 꽃도 있고 청주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에 피었느냐가 아니라 아름답게 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모든 꽃은 자기 내면으로부터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핀다고 합니다. 후배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응원하고, 당당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0대, 20대였어요. 고난과 좌절, 방황 속에 지내던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폭염의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혹독한 눈보라와 폭우에 쓰러져 청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지 않겠지요. 별자리 하나하나가 우주의 중심이듯 후배 여러분도 여러분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곳을 당당한 중심으로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청년들의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4년 동안 공을 들여 키워도 3cm밖에 자라지 않는대요. 그런데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 이상 자라기 시작해 6주만에 15m 이상 자라고, 그렇게 모소대나무가 자란 자리는 순식간에 뻗뻗하고 울창한 숲이 된다고 해요. 지난 4년간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후배 여러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요. 때가 되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위기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날 우리도 하루 몇 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당장 다음 달 우리의 삶을 암울하게 합니다. 방역 단계가 더 조여질수록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생업을 넘어 생존의 위기를 겪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절박해집니다.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심화되는 불평등의 위기, 이런 위기가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성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런 고민이 가장 큼니다.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십니다. 충북대학교의 발전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대학교를 비롯한 지역거점국립대학이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핵심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는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 연구에 탁월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충북의 미래먹거리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충북대가 2020년 7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어 충북대를 포함한 지역 내 15개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충북대 미래교육센터를 개관해 급격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앞으로도 충북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이끌고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 계획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의 시대입니다. 또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혁신하고 포용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환기 대응·격차 해소·갈등 극복을 위해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국가 비전이 국민에게 인정받아 다시 한 번 민주 정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구간 신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첨단산업 벨트 조성 등 충북과 충청 발전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지역의 다양한 역량을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학력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경력

- 제19·20·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저서

시집 ▶ 「고두미 마을에서」, 「접시꽃 당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부드러운 직선」, 「슬픔의 뿌리」, 「흔들리며 피는 꽃」, 「해인으로 가는 길」, 「세사에서 다섯시 사이」, 「사월 바다」 등

산문집 ▶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 「마음의 썩표」,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너 없이 어찌 내게 향기 있으랴」 등



〈박진희 편집위원〉



총학생회장 **문지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충북대학교 제54대 나:Be 총학생회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정치외교학과 16학번 문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원 모두가 열심히 해 주었기에 당선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 총학생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학생사회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소감과 앞으로 역할 등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85%라는 높은 찬성률로 당선됐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Be 총학생회는 학생 모두의 바람이 모인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총학생회 조직 구성과 주요 핵심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충북대학교 제54대 나:Be 총학생회는 회장단을 비롯하여 교육정책국, 기획국, 대외협력국, 사무국, 소통정보국, 복지국, 홍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자치제, 총장선거 학생 투표인정 비율 상향, 학생청원제, 교양과목 공모전,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추진, 충북대학교 대중교통버스 노선 개선 등의 핵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인상 깊었던 일 있으시다면?

2016년에 충북대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곳곳이 변하는 것을 직접 겪으며, 우리 충북대학교 캠퍼스가 참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특히 중앙도서관 신관, 그리고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사이에 도로를 막고 만들어진 학생광장이 정말 좋습니다. 이곳에서 야외 영화제를 진행했었는데 정말 인상 깊어서, 올해 꼭 다시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선배 동문들과 학교 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총동문회 및 선배 동문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 지극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충북대학교는 명실상부 지역거점국립대로서, 1951년 개교한 이래 70주년을 넘어 빛나는 도약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학내 핵심 구성원인 학생의 대표로서 더욱 빛나는 충북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편집위원)

충북대학교 학생홍보대사 ‘해울’을 만나다

권대현(해울 16기·17기, 경제학 17) 임예림(해울 16기, 행정 20) 박소영(해울 16기, 디자인 20) 김서영(해울 16기, 국제경영 20)

충북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해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권대현) 충북대학교 공식 학생홍보대사 <해울>의 17기 회장직을 맡고 있는 권대현이라고 합니다. 학생홍보대사 <해울>은 충북대학교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여러 행사 지원을 통해 학교를 홍보하고 홍보이미지모델, 공식 sns운영을 통해 대학 홍보에 앞장서는 학생 전문 홍보팀입니다. ‘해울’은 2009년 3월에 창단되어 벌써 17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울>은 대학의 밝은 미래와 학생들의 꿈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울>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박소영) 해울은 ‘해처럼 밝고 아침이슬처럼 맑고 싱그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의 학생홍보대사인 만큼 해울의 활동이 밝고 맑고 싱그려워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의 홍보를 통해 충북대학교의 밝고 맑고 싱그러운 오늘과 내일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울>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임예림) 공식 홍보대사 해울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블로그팀, 영상팀, 디자인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팀별로 다른 플랫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팀’은 학교 공식 블로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교내 소식과 더불어 취업, 지역문화와 생활 꿀팁 등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를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상팀’은 학교 홍보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하고 기발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팀’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전반의 활동을 담당하며 홍보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타팀에 디자인 작업을 지원해 주는 등 팀간의 협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해울>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 또한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모를 통한 선출인지요?

(김서영) 충북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해울>은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는데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선출되어야만 공식 홍보대사로서 활동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되는데요. 홍보대사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의미 깊었던 활동이나 기억이 남는 활동들이 있다면?

(권대현) 지난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외적인 활동에 큰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홍보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하였고, 그 결과 좀 더 발전한 콘텐츠들로 찾아뵙 수 있었는데, 작년은 충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한 해였기 때문에 ‘개교 70주년 타임캡슐영상’ 등 관련 콘텐츠들에 참여하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 기수가 참여하진 않았지만,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영상’은 비교대상을 전국 대학의 홍보대사 활동으로 넓혀도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해울>이 말하는 충북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김서영) 충북대학교는 독자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을 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외활동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공학과와 식물의학과 등 특화된 학과들도 굉장히 많고,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 또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학생의 미래와 진로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박소영) 국가거점국립대로서의 메리트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인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학내 시설 또한 최고 수준으로 유지, 보수 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

며, 주변 상권 또한 활발해 교내에 국한된 경험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충북대학교를 위해서 선배 혹은 대학 측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권대현) 저는 현재의 충북대학교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며 지극처럼 학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추진한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취업 프로그램이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 소재 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 소재 지역 내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해울>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권대현)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당장 거리두기 제한과 제도적 상황으로 인해 대면 활동을 최소화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콘텐츠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하루 빨리 사태가 완화되어 모두 밝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캠퍼스 여기저기에 <해울> 홍보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해울>을 홍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올 가을에는 축제에서도 저희 <해울>이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개인적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박소영) 학교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동문 선배님들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기증하신 기념품을 볼 때마다 저도 나중에 제 이름으로 무엇인가 후배들을 위한 후원이나 기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또한 선배님들의 지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서영) 장학금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혜택도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의외로 접근성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쉽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생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간단한 증빙 서류만으로 다양한 장학금 지원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북대학교는 준비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접근성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 서류가 좀 간략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권대현) <해울>의 입장에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찾아뵙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해울 임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또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예림) 저는 올해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주거환경학과에 복수 전공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행정학과 학생이 주거환경학을 복수 전공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또 제가 생각이 많아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결심했으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도전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박진희 편집위원)

농촌진흥청 차장 김 두 호 (농생 79)



우선 동문회보 독자인 동문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 차장 김두호입니다.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현, 식물의학과) 79학번으로 1986년부터 평범한 연구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연구행정 관료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36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문은 농촌진흥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 2국 11기관으로 발족되어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현재는 1관 3국 26과, 5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인천자원개발센터)으로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등 1,921명 정원의 조직입니다. 주요한 임무는 농업과 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산업화를 지원하며 국제기술협력으로 농업기술을 해외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과 농촌소멸화에 대

응한 지역활성화 정책 지원, 식량안보 대비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2022년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어 농업·농촌의 빅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 서비스로 농사가 더 편리해집니다. 정책, 교육, 경영, 모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농부터 창업까지 청년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조기경보 서비스가 확대되어 이상기상 피해를 줄이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합니다.

농촌진흥청에 오랜 기간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에 진출하신 계기와 성공적인 길을 걷고 계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렸고, 산골마을인 농촌에서 중학교까지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것이 농업 농촌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계엄선포 후 학교가 휴교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렸고, 힘들게 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거 같습니다. 그 후 김정화 교수님 실험실로 들어가서 전공 및 연구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는 1979년도에 신설된 학과로 당시 교수님이 부족하여 농촌진흥청 연구기관(당시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시간강사로 오시게 되어 농촌진흥청원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과를 졸업하고 충북대 대학원 석사과정(응용곤충학)에 진학을 하였으며 졸업 후 1986년 6월 호남작물시험장 식물환경과의 농업연구사로 농촌진흥청에 첫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성격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일이고 긍정적인 마인드, 관계 및 책임감 등의 태도를 중요시했기에 현재까지도 내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면 一忍長樂(일인장락)(한번 참으면 오랜 동안 즐겁다. 안 좋은 일 후에 즐거움이 생길 것이다) 사자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전자 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인의식으로 전문성 및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든 임하게 된다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동기들과 잘 어울리며 노는 학생이었습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공부도 하며 바쁘게 학교생활을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생물학과 초대 학생장이었으며, 김유례 할머니 장학금을 2년간 받았습니다.

충북대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학교 모습 및 느끼셨던 생각들이 있을까요?

김정화 교수님 연구를 돕고 배우기 위해 연구실 소파에서 혼자 많이 잤으며, 2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4학년 겨울방학까지 개인생활 및 휴가를 못 보냈을 정도로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980년 농생물학과 제1회 월약산 곤충 채집행사에 참여하여 낮에는 곤충채집을 하고 밤에는 모닥불, 조별 장기자랑을 했습니다. 1981년부터는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되었고, 서울대학교 농생물 팀과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되었고, 그 행사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후 농생물학과 곤충연구실의 후배들을 리드하며 지내왔고, 현재 23명이 되는 선후배가 만

나는 반딧불이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대학교의 시설 장비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생물학과 초기에는 교수님 연구실이 숲속에 있는 작은 별관 건물이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시설 장비도 많이 부족했고, 규모도 달랐습니다.

모교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와 민족 나아가 세계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하고 정직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기 바랍니다. 모교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있는 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며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문, 또는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후배들은 대학시절을 알차게 보내고 사회에 진출하여 堅忍至終(견인지종,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어 꿈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냄)의 마음으로 노력하여 더 훌륭하고 더 멋지며 성공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동문들께서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검은호랑이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미경 편집위원>

김두호 동문은 충북 괴산군 출신으로 세광고와 충북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응용곤충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식물환경과의 농업연구사로 공직에 입문해 2001년 농업연구관으로 승진하였다. 2008년 기획조정관실 평가조정담당관 과장을 시작으로 2016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고위공무원 나급), 2018년 국립식량과학원장(고위공무원 가급), 2020년 국립농업과학원장을 거쳐 2021년 2월 농촌진흥청 차장에 취임하였다.

SYP + 세 연 약 국

세브란스병원 처방전 조제

1. 신속 정확한 조제
2. 세브란스 병원 모든 진료과의 처방 조제
3. 친절한 복약 상담(상담전문 약사 항시 대기)

대표약사

박 순 배 (약학 66)

- 전) 역대총학생회장협의회 회장
- 전) 재경 충북대동문회 회장

▶ 대형주차공간 확보 (연대동문회관내 무료주차)

연대동문회관 1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 364-6141, 6143, 6140 FAX : (02) 364-6142



[청주점] 이음동물의료센터

안녕하세요? 동문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동물병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음동물의료센터 원장 충북대학교 00학번 전석호입니다. 저희 이음동물의료센터는 전원 충북대학교 출신의 원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동탄과 청주 두 곳에 개원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의 직업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수의사로 동물병원을 개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졸업 후 영상의학에 관심이 생겨서 영상의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석사 취득 후 영상전문수의사로 자연스럽게 2차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2차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좀 더 반려동물 및 진료수의사에게 나은 환경의 동물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치료가 잘 진행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반려동물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 반려동물은 보호자들에게 평생의 동반자이자 가족의 일원이다. 긴 시간 함께한 아이들이 긴박한 상황을 잘 넘겨 건강을 찾을 때만큼 뿌듯한 상황은 없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뇌 종양으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종양이 있어 다른 지역 병원에서 호스피스 처치를 판정 받은 아이였는데, MRI 및 CT 촬영 후 외과 원장님과 상의 후 수술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진 모두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치료 경과가 좋아 환

자의 전반적인 상태도 좋아졌고 보호자님도 만족스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수의사 직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수의사라는 직업 선택에 후회는 없으셨는지요?

수의사라는 직업에 후회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부한 대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2차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중환자일 가능성이 높는데도 사실 가끔 안좋아지는 아이들 보호자분들께서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맘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호자분들은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셔서 후회보다는 뿌듯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려가구의 증가로 우리나라 인구의 4명중 1명이 반려가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의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가정에게 어떤 문화가 필요하며, 반려인 가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나 당부하고 싶은 조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보호자의 인식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신체의 아픔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수준은 상당한 반면 반려동물의 감정적인 아픔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통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통각과 신체적 통증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유형의 불쾌한 기분상

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통증은 몸에 상처가 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도 느끼지만 정신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에서도 '동물의 감정적 아픔'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첫째, 감정적 아픔은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아픔에는 불안, 공포, 두려움, 외로움 등이 포함됩니다. 분리불안을 겪는 동물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두려움을 심하게 느끼는 동물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감정적 아픔은 신체적 고통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심한 실내묘 비중이 높은 한국은 타 지역보다 하부요로기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가 반려견 및 반려묘의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정적 아픔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좀 더 감정적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물병원들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병원에 비해 동문님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차별화된 운영방식이 있는지요?



저희 동물병원은 원장 중심의 동물병원이 아닌 진료수의사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의사는 진료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고 원장은 진료에 필요한 경영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음동물의료센터는 지역병원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2차 진료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의뢰를 주시는 지역 병원으로부터 진료의뢰에 관련된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회복 후 의뢰 병원으로 귀원되었을 때 의뢰병원에서 정확한 치료 경과를 전달받고, 이어서 환자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사로서 동문님의 목표가 무엇인지요?

저희 이음동물의료센터는 앞으로 여러 지역에 병원을 운영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동물병원이 모여 있는 수도권 지역보다는 그 외에 지역에 병원을 운영하려다 보니 수의사 수급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먼저 수의사가 근무하고 싶은 동물병원을 만든다면 수의사 수급도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문 선후배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에 충북대학교 출신 원장이 운영하는 이음동물의료센터 설립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말했던 것처럼 정답을 찾으려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도전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또, 멋진 실패를 통해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정해진 것은 없으니 본인이 생각한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가고자 하는 길을 고민하고 두드린다면 어느샌가 성숙한 본인이 거울 앞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세요. 저희는 나름대로 후배들이 졸업 전후로 추가적인 교육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편집위원>



[동탄점] 이음동물의료센터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촌이 살아가야
대한민국이 살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도 잘 삽니다.

농업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도록
농협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농업, 농촌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NH 농협

경

**제51호
동문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충북대 재직동문회 일동

축

충북대학교 CBNU 스포츠센터 소개

**‘건강=행복’ ...학생·교직원·시민 체력증진 함께해요.
스쿼시·수영·헬스·골프·필라테스·체형분석실 등 완비**

2021년 11월 개관한 충북대 ‘CBNU스포츠센터’가 최신 시설과 최고의 운동 지도자, 저렴한 가격 등으로 지역사회와 동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CBNU스포츠센터는 지하에 주차장, 레슬링장, 스포츠과학센터가 있고, 본관동과 별관동을 잇는 스포츠센터 1층 로비에 들어서면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충북대 명예교수회가 기증한 2m 높이의 ‘황소상’(이기수 조형미술학과 교수)이 이용객들을 맞고 있으며, 안내데스크 양옆으로 카페테리아와 CBNU스토어(스포츠매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CBNU 스포츠센터 본관동 1층에는 스쿼시장(단식2면·복식2면), 수영장(25m 7레인·아동풀장), 체조장, 스크린골프연습장(14타석·4월 오픈예정)이 있고, 2층에는 체육진흥원장실, 회의실, 귀빈실이 있다. 3~4층(4435㎡)에는 농구(3면), 배구(3면), 핸드볼(1면) 등 다양한 실기수업이 가능한 9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자리하고 있다. 별관동 3층 머신존(헬스장)에는 유산소 기구(트레드밀, 사이클, 일립티컬 등) 38대, 무산소 기구(멀티랙, 상·하체 근력기구 등) 50대 등 모두 88대의 최신 헬스머신과 체형분석실이 배치돼 있다. 특히 GX·PT룸에는 휴대폰이나 NFC 매체를 통해 운동 계획, 기록 관리, 중량, 횟수, 강도, 속도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를 통해 운동 방법 시청도 가능한



6700만원 상당의 디랙스핏 18대가 설치돼 있다. 4층 프리웨이트존에는 필라테스·요가룸, 스트레칭존 등으로 구성돼 있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체형·체력관리를 할 수 있다.

CBNU스포츠센터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토요일 오전 9~12시) 스쿼시, 수영, 헬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 이용 요금은 학생, 교직원, 일반으로 구분돼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자유이용, 강습, 개인레슨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CBNU 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043)249-1576~7
CBNU 스포츠센터 1층
안내데스크 본인 방문접수
(미성년자 회원 가입 불가)**

개교 70년 역사를 한눈에 “충북대학교역사관” 개관



개신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제2본관이 ‘충북대학교역사관’으로 재탄생하였다.

1956년 12월 내덕동에서 개신동으로 캠퍼스를 옮기면서 제1본관(04동)과 함께 건립된 제2본관(63동)이 1년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70년 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추억의 장소로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현관 입구 양쪽의 향나무는 1956년 12월 제2본관 건립 당시 심은 어린나무가 자란 것

으로 개신캠퍼스의 역사와 함께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동안 제2본관은 도립 충북대학이 국립 충북대학교로 성장하는 기틀을 다진 곳이었으며,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에는 교양강의동, 생활대학, 법과대학 등으로 사용하면서 개신인들의 추억과 열정이 가득한 곳이었다.

2014년 가을 제1본관이 건축한 지 58년 만에 철거당한 후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우리 동문들의 꿈과 열정,

희망이 스민 곳이었다. 개교 이래 최초의 동문 총장인 김수갑(법학 80) 총장이 제1본관처럼 황망히 사라져버리지 못하도록 보존을 결정하였고,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교의 역사를 보여 주고 동문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하였다. 1층에는 우리 대학 7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학교역사관과 학교사 자료를 모은 아카이브실, 북카페, 대학원생을 위한 라운지, 2층에는 총동문화 사무실, 휴게실, 첨단강의실

등으로 꾸몄다. 1층에서는 우리 대학이 지나온 발자취를 눈으로 살필 수 있고, 학교를 방문하는 외빈과 예비 동문들을 위한 공간이고, 2층의 총동문화 사무실과 휴게실, 첨단강의실 등은 동문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답소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동문회관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많은 동문들에게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유실된 교기 3점 복원

1951년 9월 개교 이래 학교의 성장과 교명의 변경에 따라 교기도 5번이나 바뀌었다. 1951년 도립 청주농과초급대학부터 1956년 청주농과대학 시절, 1956년 도립 충북대학부터 1978년 국립 충북대학 시절, 1978년 국립 충북대학교로 승격한 이후 1982년까지 사용한 교기는 유실되어 사라져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었다. 1983년부터 2021년 9월 26일까지 사용한 교기 실물만이 겨우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만든 교기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의 상징인 교기를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한 점은 70년을 이어온 우리 대학의 역사자료를 홀대하였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박물관에서는 졸업앨범 등에 남은 사진을 토대로 유실된 3개의 교기를 복원해서 개교 70주년 행사에 사용한 후 ‘충북대학교역사관’에 전시하고 있다.



도립 청주농과초급대학(1951~1953)과 도립 청주농과대학(1953~1956) 교기



도립 충북대학(1956~1962)과 국립 충북대학(1962~1978) 교기



국립 충북대학교 1기(1978~1982) 교기

약학대학 실험연구동 보존은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길



1956년 12월 도립 충북대학 제1본관으로 건립된 이후 학교 행정과 연구, 교육의 중심시설로서 개신캠퍼스의 심장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선배 동문들의 추억과 학교의 역사가 오롯이 깃들었던 제1본관이 2014년 가을 황망하게 철거되었다. 오래되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개신캠퍼스를 상징하던 제1본관을 철거한 자리에는 무궁화동산이 조성되었으나 모교를 찾은 동문들은 마음의 고향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아쉬움의 공간이 되고 말았다. 2021년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초창기 우리 대학의 역사를 간직한 또 하나의 건물인 약학대학 옛 실험연구동이 제1본관과 같은 운명에 처하였다. 약학대학이 개신캠퍼스를 떠나 오송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958년부터 사용하던 옛 실험연구동이 방치되자 건물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7년 만에 재현된 것이다. 역사가 서린 전통 있는 건물을 보수하고 보강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철거를 먼저 얘기하려는 것은 제1본관 철거의 전철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발상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약학대학 동문들을 중심으로 보존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보존을 위한 비용 모금을 시작하였다. 총동문화회 시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대학본부에 약학대학 옛 실험연구동 보존을 촉구하였다. 동문 스스로 학교의 역사와 추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2본관을 리모델링하여 학교역사관으로 재탄생시켰듯이 약학대학 옛 실험연구동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약학대학 옛 실험연구동 보존 기금을 마련하는 데 동문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 후원 문의는 충북대학교 동문회 사무실(043-261-3121), 후원계좌는(농협 301-0229-7165-71, 예금주: 충북대학교총동문화회)

충북대학교 동문
2차 진료비 10% 할인

이음 동물의료센터

EUM ANIMAL MEDICAL CENTER



반려견/반려묘
특화진료 병원

분과별
협진 진료

연중무휴
24시
응급진료

고난이도
수술전문

MRI / CT
영상수의사
상주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12
043)715-3133
<https://blog.naver.com/eumcamc>

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6길 15
031)831-3513
<https://blog.naver.com/eumamc>